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성공/ 실패에 따른 자기 정서의 경험

한덕용 · 장은영

성균관대학교 심리학과

국외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사회비교의 대상에 따라서 정서 경험이나 복지가 달라진다는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 대상에 따라서 경험하는 초조정서의 수준이 사회비교의 목표와 성공/실패 경험과 삼원상호작용하는 형태로 달라진다는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했다. 실험설계로는 성공/실패의 환류, 사회비교의 목표(자기향상/자기평가/자기방어) 및 비교 대상(상향/ 유사/ 하향)의 2×3×3의 완전무선설계를 사용하여 각 조건에 14명씩 무선 배정하였다. 타인과 함께 과제를 수행하여 성공이나 실패를 경험한 후 사회비교의 목표를 설정하고 자신의 다음 수행 결과를 자신보다 잘 하거나 유사하거나 혹은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고 예고된 조건에서 자신이 느끼는 초조정서의 경험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보면 삼원상호작용이 유의하여서 가설이 지지되었다. 구체적으로 가설과 일치하게 성공한 조건에서는 자기향상 목표를 설정하면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될 때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할 때보다 자기에 대한 초조정서를 덜 경험하였고, 자기방어 목표를 설정하면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될 때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할 때보다 자기에 대한 초조정서를 덜 경험하였다. 실패한 조건에서는 자기방어의 목표를 설정하면 하향비교 대상일 때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할 때보다 높은 초조정서를 경험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는 지금까지 사회비교 과정을 다룬 연구들에서 사회비교의 대상에 따라서 자기에 대한 감정이 달라진다고 가정해 온 효과가 사회비교의 목표 설정과 성공/실패 경험에 따라서 달리 나타남을 알아낸데 의의가 있다. 이 연구 결과는 필자의 선행 연구(한덕용, 1999; 장은영 · 한덕용, 1999)에서 제안한 사회비교의 기능 및 자기조절 과정과 관련지어서 논의하고 장래 연구의 과제도 제안하였다.

국외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사회비교의 대상에 따라서 정서 경험이나 복지가 달라진다는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예를 들어 자신보다 나은 사람과 비교하고 나면 기분이 나빠지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고 나면 부적 정서가 감소한다(Aspinwall & Taylor, 1993; Salovey & Rodin, 1984; Wheeler & Miyake, 199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성공이나 실패를 경험한 조건에서 비교의 대상에 따라서 경험되는 정서가 사회비교를 통해서 달성하려는 목표와 사회비교에 대한 개입에 의

해서 달라진다는 점을 제안하고, 이를 실험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한다.

사회비교 과정을 다룬 필자의 선행 연구(한덕용, 1999)에서 사회비교 목표 설정과 사회비교의 개입 수준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이나 사회비교로 초래되는 정서 경험이 달라진다는 사회비교의 자기조절이론을 제안한 바 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비교 대상의 선택에 관한 가설을 검증한 바 있다. 이 선행 연구에서 사회비교의 동기가 두 경로를 통해서 형성된

이 연구의 중요한 내용은 1999년도 한국심리학회 학술발표논문으로 발표된 바 있다.

다고 가정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특정한 상황에서 유발되는 사회비교의 동기는 사회비교할 때 설정한 목표와 사회비교가 이루어진 상황의 경험에서 초래된 개입의 수준이라는 두 요인들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가정했다.

이 이론에서 사회비교의 동기를 결정짓는 경로들 중 하나는 사회비교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로인데 이 경로는 자기향상, 자기평가 및 자기방어 목표들 가운데 하나거나 둘 이상이 의도적으로 선택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이 과정은 자신이 장래 시점에서 얻고자 추구하는 자기상에 근거를 두고 개인이 의도적으로 사회비교의 목표를 설정하는 경로이다. 이 제안은 사회비교 동기의 성질이 사회 상황에서 경험하는 내용뿐만 아니라 인간의 의도적 목표설정에도 따라서도 달라진다고 가정하는 점에서 선행 연구들의 관점과 다르다. 그리고 이러한 의도적 선행유입(feedback forward) 과정을 통해서 사회비교의 목표를 설정하는데는 개인이 추구하는 장래의 자기상, 이미 설정한 기준과 현 상태의 차이, 만성적 자존심, 자기효능성 등 만성적이거나 단기적으로 특출한 자기정체성의 단면들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사회비교의 동기를 결정하는 또 다른 경로는 이전 단계에서 사회비교의 실행 결과로 나타난 성공이나 실패 경험에 의해서 목표의 설정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이다. 사회비교를 통해서 앞서 설정한 자기방어 혹은 자기평가의 목표가 충족된 조건에서는 자기향상의 목표가 추구될 수 있다. 그러나 설정한 자기방어 동기 혹은 자기평가 동기가 좌절되거나 충족 수준이 기준에 못 미친 경우에는 자기방어의 목표 혹은 자기평가의 목표가 유지되거나 다시 설정될 수도 있다. 또한 자기방어의 목표가 좌절된 경우에도 의지적 과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자기방어의 목표가 유지될 수도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회비교의 목표 설정과 아울러 사회 상황에서 유발되는 사회비교의 동기가 서로 조화되거나 갈등을 일으키는 수준에 따라서 일정한 사회비교의 목표가 유지되거나 혹은 변화되어서 사회비교의 목표가 재설정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을 한덕웅(1999)의 실험 연구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비교를 통해서

자기향상, 자기평가 혹은 자기방어의 목표를 추구하는 조건에서 각 목표에 조화되거나 조화되지 않는 사회비교의 개입 상황에 당면하게 되면 각각 어떤 비교 대상을 선택하는지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사람들은 자신이 설정한 비교의 목표와 자신이 경험한 사회비교 상황에 의하여 서로 다른 사회비교의 동기를 경험하게 되고, 또한 이 비교 동기로 인해서 사회비교 대상을 선택할 때 영향을 받았다. 즉, 이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게 자기향상의 목표를 설정한 조건에서는 상향비교 대상의 선택이 가장 높았고, 자기평가의 목표를 설정한 조건에서는 유사비교 대상의 선택이 가장 높았으며, 자기방어의 목표를 설정한 조건에서는 하향비교 대상을 선택한 빈도가 가장 높았다. 또한 사회비교를 통해서 성공을 경험한 조건에서는 상향비교 대상의 선택이 가장 높았고, 실패를 경험한 조건에서는 하향비교 대상의 선택이 가장 높았으며, 환류가 모호한 조건에서는 유사비교 대상의 선택이 가장 높았다. 특히 본 연구의 기본 가설과 관련해서 사회비교를 위해서 설정한 목표와 수행 결과의 환류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비교 목표의 개입이 일치하는 조건에서, 일치하지 않는 조건보다, 두 경로로 유발된 사회비교의 동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비교 대상의 선택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회비교의 자기조절이론과 실증 연구의 결과에 근거를 두고 성공 또는 실패를 경험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한 사회비교의 목표가 설정되면 장차 상향, 유사 및 하향비교 대상과 자신의 수행 결과를 비교하게 될 때 자기에 관한 정서 경험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특히 국외의 선행 연구들을 보면 사회비교의 대상에 따라서 정서 경험이나 복지가 달라진다는 관점에서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 대상에 따라서 경험하는 정서의 수준이 성공실패 경험 및 사회비교의 목표에 따라서 삼원상호작용하는 형태로 달라진다는 가설을 실험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제안한 자기조절이론을 살펴보면, 특정한 사회비교의 목표 설정에 개입된 수준이 높을수록 그 동기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미 설정된 목표와 조화되면 이 사회비교의 목표가 유지될 확률이 높아

져서 다른 사회비교의 목표로 변경하여 재설정될 개연성은 낮아진다. 그러나 특정한 사회비교의 목표 설정에 개입된 수준이 낮을수록 사회 상황에 의해서 유발되는 사회비교 동기의 성질에 따라서 사회비교의 목표가 달라지는 방향으로 비교 목표의 재설정이 이루어질 개연성이 높다.

한편, 사회비교의 목표설정으로 인한 개입과 사회 상황에 의해서 초래된 특정한 사회비교의 동기가 유발된 상황에서는 장차 비교하게 되는 대상들에 따라서 경험하는 정서도 달라진다고 가정할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거나 좌절시킨다고 예상되는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개인이 우세하게 지나는 사회비교의 욕구와 상황에서 초래된 욕구가 일치하는 조건에서 그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동기는 더 강하게 되므로 그 욕구의 충족이나 미충족으로 인해서 유발되는 정서도 강하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회비교 상황에서 경험하는 정서에 관한 예언은 이미 선행 연구(한덕웅, 1999)에서 제안한 바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개인이 추구하는 우세한 사회비교의 목표에 따라서 상황, 유사 및 하향 비교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 수준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자기성장과 자기효능성을 추구하려는 사회비교의 목표가 우세한 조건에서 우월한 대상과 비교하게 되면 유사하거나 열등한 대상과 비교했을 때보다 사회비교를 통해서 자기성장이나 자기효능성의 목표를 추구한 행동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다(한덕웅, 1999의 가설 4-1). 그리고 이른바 사회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자기 타당성을 추구하는 목표가 우세한 조건에서 유사한 대상과 비교하게 되면 우월하거나 열등한 대상과 비교했을 때보다 사회적 타당성의 목표를 추구한 행동에 대한 만족이 높다(한덕웅, 1999의 가설 4-2). 또한 자기방어를 통해서 자존심을 높이려는 자기방어의 목표가 우세한 조건에서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되면 우월하거나 유사한 대상과 비교했을 때보다 자기방어를 통해서 자존심을 높이기 위한 목표의 추구 행동에 대한 만족 수준이 높다(한덕웅, 1999의 가설 4-3).

다음으로 사회적 상황 및 맥락에 따라서도 상황, 유사 및 하향비교를 통해서 얻게되는 만족 수준이 다르다. 구체적으로 유사한 타인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성공을 경험한 상황에서 자기타당화의 욕구가 충족된 경우에

우월한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유사하거나 열등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보다 사회비교를 통해서 자기성장과 자기효능성을 높이려는 목표 추구 행동에 대한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한덕웅, 1999의 가설 5-1). 그리고 유사한 타인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실패를 경험한 상황에서 열등한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우월하거나 유사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보다 사회비교를 통해서 자존심의 방어와 자존심을 높이려는 목표 추구 행동에 대한 만족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한덕웅, 1999의 가설 5-2). 또한 유사한 타인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성공/실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사한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우월하거나 열등한 사람과 비교했을 때보다 사회비교를 통해서 주관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회적 타당화를 이루려는 목표 추구 행동에 대한 만족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진다(한덕웅, 1999의 가설 5-3).

마지막으로 개인이 추구하는 우세한 비교 목표에 따라서 각각 상대적으로 성공, 실패 및 성공이나 실패가 모호한 상황에 당면하면 사회비교를 통해서 만족을 경험하는 수준에 서로 달리 영향을 미친다. 구체적으로 자기성장과 자기효능성을 추구하려는 사회비교의 목표가 우세할 때 타인보다 상대적으로 성공하는 상황에 직면하면, 다른 조건들에서보다, 상황 비교를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 수준이 높다(한덕웅, 1999의 가설 6-1). 그리고 주관적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회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목표가 우세할 때 타인들과 비교하여 성공이나 실패의 판단이 모호한 상황에 당면하면 다른 조건들에서보다 유사비교 행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 수준이 높다(한덕웅, 1999의 가설 6-2). 또한 자기방어를 통해서 자존심을 높이려는 자기방어의 목표가 우세할 때 타인보다 상대적으로 실패를 경험하는 상황에 당면하면, 다른 조건들에서보다 하향비교 행동을 통해서 얻게 되는 만족 수준이 높다(한덕웅, 1999의 가설 6-3).

이 내용에 의하면 사회비교의 대상에 따라 비교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심리적 기능이 서로 다르며, 또한 사회비교의 대상과 사회비교의 욕구 및 상황의 욕구가 일치하는 조건과 불일치하는 조건에서 만족 수준이 다르게 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의 목표, 성공이나 실패 경험 및 장차 비교하게 될 사람에 따라서 사회비교 동기가 달리 유발되고, 비교를 통하여 이러한

동기들이 얼마나 만족될지 기대하는 수준이 다르며, 비교한 결과도 다르게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이 각 상황에서 자기에 대해서 경험하는 정서가 달라질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런데 자기와 관련된 정서는 매우 다양하며 이를 질적으로 구분한 연구(Higgins, 1987)도 있어서 자기와 관련하여 어떠한 정서를 경험하는지 알아보는 일도 중요한 과제이다. Higgins(1987, 1989)는 부정적 자기 정서를 초조정서와 낙담정서로 구분하여 제안한 바 있는데, 초조정서는 불안에 해당하는 정서로 걱정이나 긴장과 같은 정서들로 이루어지며, 스트레스와도 연관되는 정서이다. 그리고 낙담정서는 우울에 해당하는 정서로 슬픔이나 낙담과 같은 정서들로 이루어진다.

본 연구는 성공/실패 경험, 사회비교의 목표 및 사회 비교 대상에 따라서 사람들이 경험하는 부정적 정서에 초점을 두고, 이 중에서도 장차 비교를 앞두고 경험하는 걱정이나 긴장에 관련되는 자기 정서를 Higgins(1987, 1989)의 초조정서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이제 선행 연구(한덕웅, 1999; 장은영·한덕웅, 1999)에서 제안한 논리에 따라서 성공 또는 실패를 경험한 상황에서 사회비교의 목표가 설정되면 장차 자신과 비교하게 되는 대상에 따라서 초조정서를 어떻게 경험하게 될지 추론해 보자.

먼저 선행 연구에 의하면 성공한 조건에서는 자기향상 동기가 우세해진다. 그리고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향상의 목표를 설정하면 자기향상 동기가 가장 우세해진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 장차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되면 이 사람이 현재 우세해진 자기향상 동기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된다. 또한 선행 연구(한덕웅, 1999) 결과를 보면 이 조건에서 사람들은 실제로 상향비교 대상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86.66%). 따라서 비록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실패할 가능성은 높게 지각되지만 자기향상 동기가 충족되리라는 기대가 높아 초조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

반면에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향상의 목표를 설정하고 장차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되면 이 비교 대상은 현재 우세해진 자기향상 동기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다. 따라서 비록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성공할 가능성은 높게 지각되지만 자기향상 동기가 충족되리라는 기대가 낮아서 초조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성공을 경험한 조건에서 자기방어의 목표를 설정하면 자기향상의 동기와 함께 자기방어의 동기도 작동된다. 또한 선행 연구(한덕웅, 1999) 결과에서도 이 조건에서 사람들은 실제로 상향비교 대상(60.00%) 다음으로 하향비교 대상(33.33%)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장차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되면 이 비교 대상은 자기향상 동기를 충족시키는데는 적합하다. 그러나 이 조건에서는 자기방어 동기를 충족시키는데는 적합하지 않으며, 상향 대상과 비교하여 실패할 가능성을 여전히 높다고 지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방어의 목표로 인해서 높아진 자기방어 동기가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함으로써 달성될 가능성이 낮다고 경험되므로 초조정서를 함께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성공을 경험한 사람이 자기방어의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장차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되면 이 비교 대상은 자기방어 동기를 충족시키는데는 적합하지만 자기향상 동기를 충족시키는데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 그러나 이 조건에서 동시에 이 사람과 비교하여 성공할 가능성을 높게 지각하게 된다. 그리고 자기방어 동기가 성공의 가능성을 능가할 만큼 강하게 경험되지 않는 경우이므로 초조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낮다.

다음으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실패한 조건에서는 자기방어 동기가 우세해진다. 그리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자기향상의 목표를 설정하면 자기향상 동기도 작동하게 된다. 선행 연구(한덕웅, 1999) 결과를 보면 이 조건에서 사람들은 실제로 상향비교 대상(66.66%) 다음으로 하향비교 대상(20.00%)을 많이 선택하였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 장차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되면 이 비교 대상은 자기향상 동기를 충족시키는데는 적합하다. 그러나 이 조건에서 자기방어 동기를 충족시키는데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 된다. 그와 동시에 이 조건에서는 이 대상과 비교하여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게 된다. 그러므로 실패한 후 자기향상 목표를 설정하고 상향 대상과 비교하게 되면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초조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자기향상의 목표를 설

정하고 장차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되면 자기방어 동기를 충족시키는데는 적합하지만 자기향상 동기를 충족시키는데는 적합하지 않다. 이 조건에서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을 수 있다. 그러나 사전 실패의 경험 때문에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다시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위험도 높게 지각하게 된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자신보다 못한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함에도 불구하고 초조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자기방어의 목표를 설정하면 자기방어 동기가 가장 우세해진다. 이 조건에서는 장차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되면 이 비교대상은 현재 우세해진 자기방어 동기를 충족시키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다. 선행 연구(한덕웅, 1999) 결과를 보면 이 조건에서 사람들은 실제로 하향비교 대상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53.33%). 그러나 이러한 하향비교를 통해서 현재 방어 동기가 충족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각하지만, 이와 동시에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다시 실패할지 모른다는 위험도 높게 지각하게 된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자기방어 동기에 적합한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함에도 불구하고 초조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게 된다.

반면에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자기방어의 목표를 설정하고 장차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되면 우세해진 자기방어 동기를 충족시키는데는 가장 적합하지 못한 조건이다. 이 조건에서 현재 방어 동기를 충족시킬 가능성은 낮지만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게 되므로 비록 실패하게 되더라도 실패로 인한 자존심의 손상은 유사 대상이나 하향 대상일 때보다 낮다. 그러므로 자기방어 동기의 충족에는 적합하지 않은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함에도 불구하고 초조정서를 경험할 가능성이 오히려 낮게 된다.

앞에서 제안한 내용에 의하면 성공/실패, 사회비교의 목표 및 사회비교 대상의 삼원상호작용 효과를 예상할 수 있다(가설 I). 각 사회비교의 목표가 주어진 조건에서 우세해진 동기를 충족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예상되는 사회비교의 대상으로 인해서 경험되는 초조정서를 성공조건과 실패조건별로 예측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공을 경험한 사람에게 자기향상의 목표를 설정해

주면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될 때 초조정서를 가장 약하게 경험할 것이다(가설 I-1). 반면에 성공을 경험한 사람에게 자기방어의 목표를 설정해 주면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될 때 초조정서를 가장 강하게 경험할 것이다(가설 I-2). 그리고 실패를 경험한 사람에게 자기방어의 목표를 설정해 주면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될 때 초조정서를 가장 강하게 경험할 것이다(가설 I-3).

방 법

실험 절차

피험자들은 4명씩 함께 실험에 참여하였다. 실험은 컴퓨터 화면에 나타나는 지시문을 읽으면서 진행되었는데, 컴퓨터 사이에 칸막이를 두어서 피험자는 다른 사람의 화면을 볼 수 없었다. 먼저 이 연구의 목적을 소개하기 위하여 현재 대학생들의 지각능력 수준을 알아 보는데 목적이 있다고 알려주었다. 지각능력검사의 연습 시행을 1분간 실시한 후 첫번째 본시행을 5분간 수행하였다. 본시행이 끝난 후 자신의 수행 결과를 알려 줄 때 타인들과 비교하여 계산한 지각능력 점수로 성공/실패의 환류를 조작하였다. 그 후 장차 두번째 본시행 결과를 토대로 컴퓨터가 무선으로 선정해 주는 사람의 수행과 비교하게 된다고 알려주고, 타인과 비교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회비교의 목표를 조작하였다. 그 다음 컴퓨터가 무선으로 선정해 준 비교 대상을 알려주기 위하여 첫번째 본시행에서 비교할 대상이 얻은 지각능력검사의 백분위 점수를 조건에 따라서 달리 제공하여 조작하였다. 세 독립변인을 조작한 후 종속변인으로 자기 정서를 초조정서를 경험한 수준으로 측정했다. 부가적으로 장차 자신이 지각능력검사에서 얻게 될 점수를 비교하고 싶은 사람을 세 사람들 중 가운데서 선택하도록 하였다. 끝으로 피험자들은 조작점점 문항과 부가적 종속측정치가 들어있는 설문에 응답하였다.

이상의 절차를 요약하면 '지각능력검사 → 첫번째 본시행 5분간 수행 → 자기 수행의 환류(성공 및 실패) 조작 → 사회비교의 목표의 설정(자기향상, 자기평가 및 자기방어) → 비교대상 배정(상향비교 대상, 유사비교 대상 및 하향비교 대상) → 자기 정서의 측정 → 비교대상의 선택 → 조작 점점'의 순이다.

피험자

'심리학개론'을 교양 강좌로 수강하는 성균관대학교 학생 252명을 18조건들에 각각 14명씩 무선할당하였다.

실험설계

2(수행의 환류: 성공/실패) × 3(사회비교목표: 자기향상/자기평가/자기방어) × 3(비교대상: 상향/유사/하향)의 완전무선설계를 사용했다.

실험 과제

장은영 · 한덕용(1999)의 연구에서 사용했던 지각능력검사를 과제로 사용하였다. 이 지각능력검사는 글자, 낱자, 그림 및 숫자로 구성된 한 쌍의 그림판이 나타났다가 순간적으로 사라진 후 두 그림판들이 동일하다고 생각되면 자판에서 알파벳 'O'를 누르고, 다르다고 생각되면 알파벳 'X'를 눌러야 한다. 동일한 연습과제를 수행하기 전에 지각능력 검사의 점수를 산출할 때 응답 속도와 정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 내에 응답한 개수, 반응하는데 걸린 시간 및 정확하게 응답한 개수를 고려하여 계산된다고 피험자들에게 알려주었다.

독립변인의 조작

① **수행 결과의 환류:** 수행의 환류는 이 지각능력검사를 대학생들에게 실시해서 얻은 선행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여 100점 만점에 50점을 평균으로 정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백분위로 환산한 점수라고 소개하여 피험자들의 검사 결과를 알려주었다. 성공조건에서는 자신과 유사한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자신의 수행이 백분위로 상위 20%에 해당하는 우수한 수행이라고 알려주었다. 실패조건에서는 자신과 유사한 대학생들을 기준으로 환산했을 때 자신의 수행이 백분위로 하위 20%에 해당하는 저조한 수행이라고 알려주었다.

② **사회비교의 목표:** 사회비교의 목표는 첫번째 지각능력 과제를 마친 후 두번째 본시행에서 얻은 점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목표로 조작하였다. 자기향상목표조건에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점수를 비교할 때 자신의 지각능력을 증진시켜서 유용성을 높이는데만 목표를 두라고 지시하였다. 자기평가

목표조건에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점수를 비교할 때 자신의 지각능력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정확히 알아내는데만 목표를 두라고 지시하였다. 자기방어목표조건에서는 다른 사람과 자신의 점수를 비교할 때 자신의 자존심을 방어하여 자존심이 손상 당하지 않도록 하는데만 목표를 두라고 지시하였다.

③ **사회비교 대상:** 비교의 대상은 컴퓨터가 무선으로 선정해 준 사람이 첫번째 본시행에서 얻은 수행 수준으로 조작하였다. 상향비교대상조건에서는 두번째 본시행 결과를 비교할 사람으로 컴퓨터가 첫번째 본시행에서 피험자 자신보다 더 잘했던 사람을 무선으로 선정하였다고 알려주었다. 유사비교대상조건에서는 두번째 본시행 결과를 비교할 사람으로 컴퓨터가 첫번째 본시행에서 피험자 자신과 유사했던 사람을 무선으로 선정하였다고 알려주었다. 하향비교대상조건에서는 두번째 본시행 결과를 비교할 사람으로 컴퓨터가 첫번째 본시행에서 피험자 자신보다 더 못했던 사람을 무선으로 선정하였다고 알려주었다.

종속변인의 측정

자기 정서: 피험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초조정서들을 각각 얼마나 느끼는지 그 정도에 따라서 응답하도록 하였다. 강혜자 · 한덕용(2000)의 연구에서 얻은 정서 측정치들 가운데 초조정서(긴장되다/걱정스럽다/불안하다/두렵다/안절부절못하다/초조하다)들을 각각 얼마나 느끼는지 그 정도를 '1=전혀 경험하지 않는다'에서부터 '9=매우 강하게 경험한다'까지 9점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 정서들을 한 요인으로 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SAS를 이용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은 공통변량의 초기값을 중다상관자승(SMC)으로 하는 주축분해법으로 얻었다. 그 결과 한 요인이 추출되었으나 '긴장되다'만이 요인 부하량이 .3을 넘지 못하여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5개 문항만으로 요인분석한 결과에 따라서 초조정서 용어들의 요인부하량을 보면 '걱정스럽다(0.78), 불안하다(0.75), 두렵다(0.70), 안절부절 못하다(0.70), 초조하다(0.69)'이었다. 이 다섯 문항들이 본 연구의 종속변인 측정치로 사용되었다. 측정치로 사용된 이 초조정서의 신뢰도는 Cronbach의 α 계수로

0.88이었다.

또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서 얻은 구성개념의 측정치가 초조정서의 한 요인 모형에 잘 부합되는지 검토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기초부합치(GFI = 0.99), 조정부합치(AGFI = 0.99), 표준부합치(NFI = 0.96) 및 표준화하지 않은 부합치(NNF = 0.96)는 모두 좋은 부합의 기준으로 제시되는 0.90보다 높아서 한 요인 모형이 자료에 잘 부합되었고, RMR도 0.03으로 좋은 지수를 보였다. 따라서 이 요인을 측정하는 문항들이 높은 수렴타당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를 근거로 초조정서를 측정하는 종속변인 측정치는 이 5개 정서의 평정치들을 평균하여 사용하였는데, 이 점수가 높을수록 초조정서가 높음을 의미한다.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 참고고 각 조건에서 어떤 비교의 대상을 선택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자신과 함께 실험에 참가한 세 사람들이 얻은 지각능력검사의 결과가 자신보다 우수하거나, 유사하거나 혹은 나쁘다고 알려주고, 그 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을 선정하여 장차 자신의 수행과 비교할 대상으로 선택하도록 하였다.

결 과

독립변인의 조작 효과 점검

수행 환류의 조작 효과는 ‘첫번째 본시행에서 당신의 지각능력 점수는 백분위로 다음 중 어디에 속합니까’와 ‘첫번째 본시행에서 당신의 지각능력 점수는 어느 정도

의 수준이었습니까’라는 두 개의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피험자들이 자신의 환류에 해당되는 지시문을 정확히 기억하였다.

또한 ‘첫번째 본시행에서 당신은 자신의 지각능력 점수가 다른 대학생에 비하여 좋은 편이라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응답을 2(수행의 환류) × 3(사회비교목표) × 3(비교 대상)로 변량분석한 결과를 보면 환류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_{(2,234)} = 925.40, p < .0001, \omega^2 = .98$). 즉 성공조건(M = 6.50)에서 실패조건(M = 2.24)보다 자신의 점수가 더 좋다고 응답하여서 성공과 실패의 환류 조작이 효과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사회비교목표의 조작 효과는 ‘실험자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어디에 관심을 두라고 하였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피험자들이 자신의 사회비교목표에 해당하는 지시문을 정확히 기억하였다.

또한 ‘당신은 실험자의 설명을 통하여 자신의 유능성을 높이는데 얼마나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2(수행의 환류) × 3(사회비교목표) × 3(비교 대상)로 변량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회비교목표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_{(2,234)} = 34.83, p < .001, \omega^2 = .7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향상 목표조건(M = 6.71)에서 자기평가 목표조건(M = 4.88)과 자기방어 목표조건(M = 5.21)보다 자신의 유능성을 높이는데 더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당신은 실험자의 설명을 통하여 자신의 지각능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정확히 알아내는데 얼마나 관

표 1. 초조정서 경험의 평균(표준편차)

	성공				실패				전체
	상향	유사	하향	전체	상향	유사	하향	전체	
사회비교목표									
자기향상	2.73 (1.27)	2.67 (1.03)	3.18 (1.39)	2.86 (1.23)	3.20 (1.09)	3.30 (1.20)	3.24 (1.14)	3.25 (1.12)	3.05 (1.18)
자기평가	2.46 (1.03)	3.25 (1.21)	3.19 (1.04)	2.97 (1.13)	3.45 (1.16)	3.51 (1.13)	3.24 (1.05)	3.40 (1.09)	3.18 (1.13)
자기방어	3.27 (1.52)	2.52 (1.21)	2.79 (0.88)	2.86 (1.24)	2.37 (1.41)	3.05 (1.10)	3.48 (1.70)	2.98 (1.46)	2.92 (1.35)
전체	2.82 (1.30)	2.81 (1.17)	3.05 (1.11)	2.90 (1.19)	3.02 (1.28)	3.28 (1.13)	3.32 (1.30)	3.21 (1.24)	3.05 (1.22)

심을 두게 되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2(수행의 환류) × 3(사회비교목표) × 3(비교 대상)로 변량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회비교목표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_{(2,234)} = 25.30, p < .001, \omega^2 = .63$).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평가 목표조건($M = 6.99$)에서 자기향상 목표조건($M = 5.55$)과 자기방어 목표조건($M = 5.42$)보다 자신의 능력을 정확히 아는데 더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당신은 실험자의 설명을 통하여 자신의 자존심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데 얼마나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까'에 대한 응답을 2(수행의 환류) × 3(사회비교목표) × 3(비교 대상)로 변량분석한 결과를 보면 사회비교목표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_{(2,234)} = 71.99, p < .001, \omega^2 = .84$).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방어 목표조건($M = 7.24$)에서 자기향상 목표조건($M = 4.42$)과 자기평가 목표조건($M = 4.57$)에서 자신의 자존심을 방어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 결과는 세 사회비교의 목표 설정이 잘 조작되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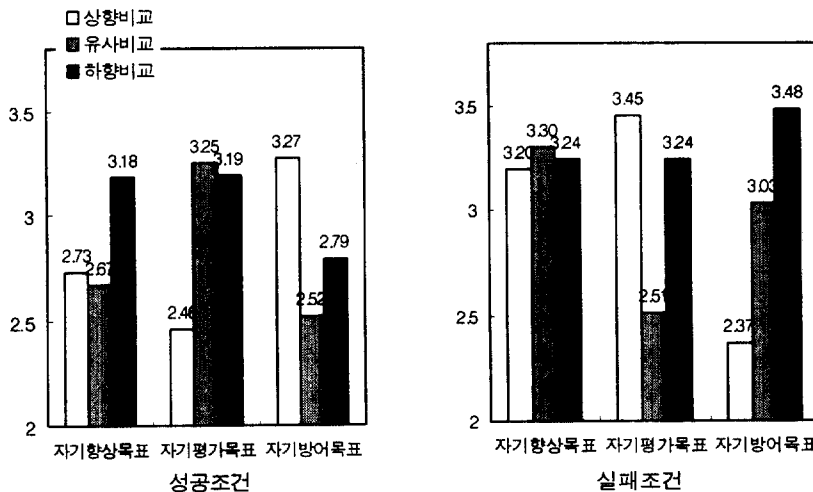
비교 대상의 조작 효과는 '당신과 두번째 본시행 결과를 비교하게 된 사람은 첫번째 본시행에서 얼마나 잘한 사람이었습니까'라는 질문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피험자들이 자신의 비교 대상에 해당하는 지시문을 정확히 기억하였다. 또한 '당신은 두번째 본시행 결과를 당신과 비교하게 된

사람이 당신보다 첫번째 본시행에서 얼마나 잘했다고 생각합니까'에 대한 응답을 2(수행의 환류) × 3(사회비교목표) × 3(비교 대상)로 변량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교 대상의 주효과만 유의하였다($F_{(1,234)} = 180.76, p < .0001, \omega^2 = .95$). 즉, 상향비교 대상 조건($M = 6.45$)에서 유사비교 대상 조건($M = 4.95$)보다 비교 대상이 더 잘했다고 응답했고, 유사비교 대상 조건보다 하향비교 대상 조건($M = 2.95$)에서 비교 대상이 더 잘했다고 응답했다. 이 결과는 사회비교 대상이 잘 조작되었음을 보여준다.

초조정서의 경험

성공하거나 실패한 후 사회비교목표를 달리 설정하게 될 때 비교 대상에 따라서 초조정서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서 경험은 앞서 언급한대로 초조정서를 측정하는 5개 문항에 응답한 값을 평균하여 얻었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3(사회비교목표) × 3(비교 대상) × 2(수행의 환류)로 변량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변량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공조건($M = 2.90$)보다 실패조건($M = 3.21$)에서 초조정서를 더 강하게 경험하여서 환류의 주효과가 유의하였다($F_{(1,234)} = 4.16, p < .05, \omega^2 = .18$).



(그림 1) 성공/실패 조건별로 본 사회비교 목표와 비교대상이 초조 정서에 미치는 효과

사회비교의 목표, 대상 및 성공/실패에 따른 자기 정서의 경험

표 2. 사회비교의 목표와 대상에 따른 초조정서의 단순 상호작용 분석

변량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값	p값
비교 대상×비교 목표 at 성공	4	10.04	3.51	1.71	<.05*
비교 대상×비교 목표 at 실패	4	6.85	2.38	1.16	<1.0

표 3. 사회비교 대상에 따른 초조정서의 대비분석

대 비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합	F값	p값
상향비교대상 vs 유사비교대상 at 자기향상목표 at 성공	1	2.021	2.02	1.37	<1.0
상향비교대상 vs 하향비교대상 at 자기향상목표 at 성공	1	3.43	3.43	2.33	<.05
유사비교대상 vs 하향비교대상 at 자기향상목표 at 성공	1	3.03	3.83	2.60	<.05
상향비교대상 vs 유사비교대상 at 자기방어목표 at 성공	1	3.93	3.93	2.67	<.05
상향비교대상 vs 하향비교대상 at 자기방어목표 at 성공	1	3.66	3.66	2.48	<.05
유사비교대상 vs 하향비교대상 at 자기방어목표 at 성공	1	2.48	2.48	1.68	<1.0
상향비교대상 vs 유사비교대상 at 자기방어목표 at 실패	1	3.47	3.47	2.36	<.05
상향비교대상 vs 하향비교대상 at 자기방어목표 at 실패	1	8.22	8.22	5.59	<.05
유사비교대상 vs 하향비교대상 at 자기방어목표 at 실패	1	2.28	2.28	1.55	<1.0

표 4.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

사회비교목표	대상 선택	성공								실패									
		상향대상		유사대상		하향대상		전체		상향대상		유사대상		하향대상		전체			
		N	%	N	%	N	%	N	%	N	%	N	%	N	%	N	%		
향상	상향비교	12	85.71	8	57.14	8	57.14	28	66.66	8	57.14	9	64.28	9	64.28	26	61.90	54	64.28
	유사비교	1	7.14	5	35.71	4	28.57	10	23.80	3	21.42	4	7.14	1	7.14	8	19.04	18	21.42
	하향비교	1	7.14	1	7.14	2	14.28	4	9.52	3	21.42	1	28.5	4	28.57	8	19.04	12	14.28
	전체	14	100.00	14	100.00	14	100.00	42	100.00	14	100.00	14	100.00	14	100.00	42	100.00	84	100.00
평가	상향비교	9	64.28	5	35.71	7	50.00	21	50.00	9	64.28	7	50.00	4	28.57	20	47.61	41	48.80
	유사비교	5	35.71	7	50.00	3	21.42	15	35.71	4	28.57	7	50.00	7	50.00	18	42.85	33	39.28
	하향비교	0	0.00	2	14.28	4	28.57	6	14.28	1	7.14	0	0.00	3	21.42	4	9.52	10	11.90
	전체	14	100.00	14	100.00	14	100.00	42	100.00	14	100.00	14	100.00	14	100.00	42	100.00	84	100.00
방어	상향비교	8	57.14	9	64.28	6	42.85	23	54.76	4	28.57	4	28.57	8	57.14	16	38.09	39	46.42
	유사비교	2	14.28	4	28.57	5	35.71	11	26.19	4	28.57	6	42.85	4	28.57	14	33.33	25	29.76
	하향비교	4	28.57	1	7.14	3	21.42	8	19.04	6	42.85	4	28.57	2	14.28	12	28.57	20	23.80
	전체	14	100.00	14	100.00	14	100.00	42	100.00	14	100.00	14	100.00	14	100.00	42	100.00	84	100.00
전체		42	100.00	42	100.00	42	100.00	126	100.00	42	100.00	42	100.00	42	100.00	126	100.00	252	100.00

표 5. 사회비교 대상을 선택한 빈도의 주효과 분석

변량원	전 체		상향비교 선택		유사비교 선택		하향비교 선택	
	df	χ^2	df	χ^2	df	χ^2	df	χ^2
수행의 환류(A)	2	1.27	1	1.55	1	0.19	1	0.93
사회비교목표(B)	4	10.18*	2	6.20*	2	6.19*	2	3.94
비교 대상(C)	4	8.07†	2	2.02	2	5.26	2	3.48

† p<.10 * p < .05

표 6. 가설 검증을 위한 상황, 유사, 하향비교 대상의 선택 백분율의 대비 분석

대 비	df	χ^2
(1) 상향비교 대상의 선택		
향상목표 VS 평가목표+방어목표	1	4.90*
성공/향상목표상향비교 VS 나머지	1	8.98*
(2) 하향비교 선택		
방어목표 VS 평가목표+향상목표	1	7.36*
실패/방어목표/상향비교 VS 나머지	1	3.85*

* $p < .05$

그러나 삼원 상호작용 효과($F_{(4,234)} = 2.45, p < .05, \omega^2 = .09$)가 유의하여서 가설 I 이 지지되어서 주효과에 대한 해석은 제한된다. 이 삼원 상호작용의 효과를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단순 상호작용과 대비분석한 결과가 표 2와 표 3에 각각 제시되어 있고,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이 그림에 의해서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공한 조건에서 자기향상의 목표가 설정된 경우에는 장차 자신보다 수행 수준이 높은 사람($M = 2.73$)이나 자신과 수행 수준이 유사한 사람($M = 2.67$)과 비교하게 되면 자신보다 수행 수준이 낮은 사람($M = 3.18$)과 비교할 때보다 초조정서를 덜 경험했다. 따라서 성공을 경험하고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하여 자기향상의 동기가 높아진 조건에서는 자기향상 동기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될 때 초조정서를 가장 덜 경험하게 된다는 가설 I -1이 지지되었다.

또한 성공한 조건에서 자기방어의 목표가 설정된 경우에는 장차 자신보다 수행 수준이 낮은 사람($M = 2.79$)이나 자신과 수행 수준이 유사한 사람($M = 2.52$)과 비교하게 되면 자신보다 수행 수준이 높은 사람($M = 3.27$)과 비교할 때보다 초조정서를 덜 경험했다. 따라서 성공을 경험하고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면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될 때 초조정서를 가장 높게 경험한다는 가설 I -2가 지지되었다.

한편 실패한 조건에서 자기방어 목표가 설정된 경우에는 장차 자신보다 수행 수준이 높은 사람($M = 2.37$)보다 자신과 수행 수준이 유사하거나 더 낮은 사람(각각 $M = 3.05, M = 3.48$)과 비교할 때 초조정서를 더 높게 경험하였다. 따라서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여 자기방어의 동기가 높아진 조건에서는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될 때 초조정서를 가장 강하게 경험하게 된다는 가설 I -3이 지지되었다.

그 외에 비록 가설에서 예측한 내용은 아니지만, 참고로 성공한 조건에서 자기평가 목표가 설정된 경우에는 자신보다 수행 수준이 높은 사람($M = 2.46$)과 비교할 때보다 자신과 유사하거나 더 낮은 사람(각각 $M = 3.25, M = 3.19$)과 비교할 때 초조정서를 더 높게 경험하였다. 이 결과는 대학생들이 대체로 자기성장 동기가 높아서 2/3 가량이 상향비교 대상을 선호한다는 필자의 선행 연구(한덕용, 1999; 장은영·한덕용, 1999) 결과를 볼 때 성공 환류를 받은 조건에서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하면 자기평가의 동기가 충족될 수 있기 때문에 초조정서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사회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

피험자들이 장차 지각능력검사 결과를 비교해 볼 사람으로 선택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다. 이 자료를 Linear Analysis를 사용하여 3(사회비교목표) × 3(비교 대상) × 2(수행의 환류)의 3원 빈도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되어 있다. 이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사회비교목표($\chi^2 = 10.18, p < .05$)의 주효과가 유의하였으며, 비교 대상($\chi^2 = 10.18, p < .05$)의 주효과는 가설과 일치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대비분석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먼저 상향비교 대상을 선택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향상목표를 설정한 조건(64%)에서 자기평가목표조건(49%)과 자기방어목표조건(46%)보다 상향비교 대상의 선택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chi^2 = 4.90, p < .05$). 이 결과를 보면 사회비교목표가 자기를 평가하거나 자기를 고양시키려는 목표인 경우보다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 사회비교를 통해서 자기를 향상시키려는 동기가 높아져서 이 동기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한 상향비교 대상을 선택한 백분율이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는 자기를 향상시키려는 목표인 경우에 상향비교 대상이 가장 이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다른 비교 대상보다 더 많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성공 환류를 받은 조건에서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고 자신보다 더 잘했

던 사람과 장차 비교하게 되면(85.71%) 나머지 조건들보다 상황비교 대상의 선택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chi^2 = 8.98, p < .05$).

다음으로 하향비교 대상의 선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기방어를 설정한 조건(24%)에서 자기향상 목표조건(14%)과 자기평가목표조건(12%)보다 하향비교 대상의 선택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chi^2 = 7.36, p < .05$). 그리고 실패 환류를 받은 조건에서 자기방어목표를 설정하고 자신보다 더 잘했던 사람과 장차 비교하게 되면(42.85%) 나머지 조건들보다 하향비교 대상의 선택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chi^2 = 3.85, p < .05$).

논 의

선행 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사회비교의 대상에 따라서 사회비교 과정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이 다르다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 가정과 달리 비교대상에 따라서 경험되는 초조정서의 경험 수준이 사회비교 상황에서 경험한 성공/실패의 결과와 사회비교의 목표 설정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가설을 제안하였다.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사회비교목표와 사회비교의 결과로 초래된 성공이나 실패를 경험한 사회비교 개입이라는 두 경로들을 통해서 일정한 사회비교 동기가 우세해지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정해진 비교 대상으로 인해서 이 동기가 충족되는 조건과 충족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되는 조건에서 자기관련 정서의 경험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보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비교 대상이 정해진 경우에 경험하는 초조정서는 사회비교목표, 사회비교 대상 및 성공/실패 환류에 따라서 달라졌다. 다시 말하면 사회비교 과정을 다룬 연구들에서 사회비교의 대상에 따라서 자기에 대한 감정이 달라진다고 가정해 온 효과가 사회비교의 목표 설정과 성공/실패 경험에 따라서 달리 나타남을 알아냈다. 따라서 필자의 선행 연구(한덕용, 1999; 장은영·한덕용, 1999)에서 사람들이 상향비교, 유사비교 및 하향비교를 주로 선택한 조건마다 각각 어떤 정서를 경험하고 있었는지를 알아볼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인을 조작한 후에 초조정서를 먼저 측정하고 그 다음으로 비교 대상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순수하게 독립변인의 효과가 나타난 측정치는 초조정서이며, 비교 대상을 선택한 빈도는 부가적 측정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사람들이 상향비교, 유사비교 및 하향비교를 주로 선택한 조건마다 어떤 정서를 경험하는지를 연결하여 살펴보려면, 본 연구의 선택 빈도 측정치도 유용하지만, 이보다 선행 연구에서 사람들이 상향비교, 유사비교 및 하향비교를 주로 선택한 조건을 비교하여 알아보는 것이 더 유용할 것이다.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성공 환류를 받은 후 각 사회비교의 목표가 설정된 조건에서 각 비교 대상에 따라서 경험한 정서와 각 비교 대상을 선택한 빈도를 연결지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성공 환류를 받은 후 자기향상 목표가 설정된 경우에는 하향비교 대상보다 상향비교 대상과 장차 비교하게 될 때 초조정서를 덜 경험하였다. 따라서 자기향상 동기를 충족시키는데 적합하지 않은 사람보다 적합한 사람과 비교할 때 초조정서를 덜 경험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조건에서 경험한 초조정서는 여러 조건들과 비교할 때 중간 수준($M = 2.73$)이었는데 이 값은 예상한 값보다는 큰 편이다. 그 이유는 이 조건에서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하면서도 자기향상의 목표를 계속 지니게 될 때 따르는 부담이 작을 때 때문으로 보인다. 이 해석은 비교 대상을 선택한 빈도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해볼 수 있다. 즉, 이 조건에서 상향비교를 계속하려고 한 점으로 볼 때 피험자들이 상향비교를 추구하면서도 자기향상의 목표를 충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음을 알 수 있다($66.66\%, \chi^2 = 8.98, p < 0.05$). 그리고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향상목표가 설정된 경우에 확실한 성공 환류를 받으면 다른 어떤 조건보다 상향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가 높았다($86.66\%, \chi^2 = 12.70, p < 0.001$). 따라서 이 조건에서 사람들은 자기향상에 적합한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하려 하며,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함에도 불구하고 초조정서를 강하게 경험하지는 않지만,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하면서도 자기향상의 목표를 계속 지니게 되므로 중간 수준의 초조정서를 경험한다고 추론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가설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지는 않았지만, 사회비교에서 성공을 경험한 후 자기평가 목표가 설정된 경우에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할 때보다 유사비교 대상 또는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할 때 초조정서를 경험한 수준이 더 높았다. 이 결과는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할 경우 높은 자기평가 동기나 자기향상 동기를 전혀 충족되지 못하므로 초조정서를 강하게 경험하게 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유사비교 대상이 자기를 평가하는데 적합하지만 자신과 유사한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 역시 강하게 경험하고 이로 인해 초조나 불안 경험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 있다.

사회비교에서 성공을 경험한 후 자기방어 목표가 설정된 경우에 사람들은 하향비교 대상보다 상향비교 대상과 강차 비교하게 될 때 초조정서를 더 강하게 경험하였다. 이 조건에서는 사람들이 자기방어 동기와 자기향상 동기를 모두 경험하게 되어서 사회비교를 통해서 나타날 결과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정서 경험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즉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하는 사람은 자신보다 잘한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해야 하므로 자신의 성공을 운과 같은 요인에 귀인하여 앞으로의 비교에서 성공할 기대가 낮아져서 초조정서를 높게 경험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실패 조건에서는 성공 조건과 달리 서로 다른 각 사회비교의 목표가 설정된 조건에서 비교 대상에 따라서 경험한 초조정서가 수준은 높지만 조건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를 실패 조건에서 사회비교의 목표와 대상을 달리 조작해서 얻은 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와 연결지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비교에서 실패를 경험한 후 자기향상 목표가 설정될 때와 자기평가 목표가 설정된 경우에 사람들은 비교 대상에 따라서 초조정서를 달리 경험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모든 조건에서 경험한 초조정서의 수준이 높은 편이다. 이 결과는 실패로 인해서 높은 초조정서를 경험한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이 외에 비교의 목표와 대상에도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기향상의 목표가 설정된 경우에도 자기방어 동기와 자기향상 동기를 모두 경험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 비교 대상과의 비교 결과에 대한 기대에 따라서 정서 경험이 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조건에서는 상향비교 대상인 경우에는 비교로 인해서 실패할 가능성이 높게 지각되고 하향비교 대상인 경우에는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위협을 지각하게 되며, 실패 후 자신과 유사한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자기평가의 목표가 설정된 조건에서는 유사비교 대상이 자기를 평가하는데 적합하지만 자신과 유사한 사람과 비교하게 된다는 점에서 불확실성 또한 강하게 경험하고, 상향비교 대상 및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되는 경우에도 실패 후 주어진 평가 목표로 인해서 자기를 평가하게 된다는 점에서 초조정서를 강하게 경험했다고 추론할 수 있다. 특히 자기평가의 동기가 높은 조건에서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되면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여 확실한 실패 평가를 받게될 수 있다는 기대로 인해서 높은 초조정서를 경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패 조건에서 자기방어의 목표가 설정된 경우에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하면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할 때보다도 초조정서를 더 높게 경험하였다. 이 조건에서는 방어 동기를 충족시키기에 적합하지 않은 대상이지만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는 자기방어의 부담이 오히려 적어지므로 초조정서를 덜 경험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조건에서 자기방어의 목표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성은 높게 지각하기 때문에 초조정서는 낮다고 예상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목표가 주어진 때와 유사한 정도로 초조정서가 경험된 이유는 이 조건에서 실패로 인한 좌절로 인해서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함에도 불구하고 이후 성공기대가 낮아져서 초조정서를 높게 경험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해석은 빈도 분석 결과에서도 확인해 볼 수 있다. 실패하고 자기방어의 목표가 설정된 조건에서 비교대상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하도록 한 결과를 보면 다른 조건들보다도 하향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42.85%, $\chi^2 = 3.85$, $p < 0.05$). 그리고 선행 연구 결과에서는 자기방어목표가 설정된 경우에 확실한 실패 환류를 받으면 다른 어떤 조건들보다 하향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가 높았다(53.33%, $\chi^2 = 7.76$, $p < 0.01$). 따라서 확실한 실패 환류를 받은 조건에서 사람들은 자

기방어목표가 설정되면 하향비교 대상의 선호가 가장 높으며, 이에 더하여 이 조건에서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실패가 예견될 때보다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실패가 예견될 때 더 초조해짐을 알 수 있다. 즉, 확실한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방어목표가 설정되면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향비교 대상을 선호하지만 자신보다 못한 사람보다 자신의 수행이 나쁜 경우를 우려하여 초조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조건에서도 예상보다 상향비교 선택도 높은 편인데(38.09%), 이 이유는 상향비교 대상을 선택할 경우 장차 예견되는 실패에서 자기 정당화가 가능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시 말해서 하향비교 대상과 비교함에도 불구하고 이후 성공 기대가 낮아서 초조정서를 높게 경험하게 되면 방어적 반응으로 상향비교 대상을 선택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도 결과를 요약하였지만 피험자들에게 스스로 자신이 비교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하도록 하여 얻은 빈도 분석 결과는 선택 빈도를 주 종속치로 사용한 선행 연구 결과를 재확증해 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비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와 선행 연구에서 얻은 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를 종합해 보면 자기향상목표가 설정되고 확실한 성공 환류를 받은 경우에는 상향비교 대상의 선호가 가장 높아서 하향비교 대상을 설정해 줄 때보다 상향비교 대상을 설정해 줄 때 초조정서를 덜 경험하게 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자신보다 뛰어난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한다고 해서 항상 스트레스와 같은 부정정서를 유발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상향비교 대상과 비교하게 되더라도 이미 성공을 경험했고 그 대상이 자신을 향상시키려는 목표에 부합되는 사람이라면 부정정서를 덜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실패를 경험하고 자기방어목표가 설정되면 다른 조건보다도 자신이 스스로 선택할 때 하향비교 대상을 더 많이 선택하였다. 그리고 선행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기방어목표가 설정된 경우에 확실한 실패 환류를 받으면 다른 어떤 조건보다 하향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가 높았다.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보다 잘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실패가 예견될 때보다 자신보다

못하는 사람과 비교하여 실패가 예견될 때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하향비교 대상을 선호하지만, 자신보다 못한 사람과 비교하게 되면 실패에 대한 우려 때문에 초조정서 경험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의 과제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장래 연구의 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에서는 정서는 종속변인으로 초조정서의 경험을 다루었다. 그러나 우리가 경험하는 자기관련 정서는 이 외에도 여러 종류가 제안되어 왔다. 예를 들면 Higgins(1987, 1989)는 자기관련 정서로서 불안과 유사한 초조정서 이외에 우울과 유사한 낙담정서를 연구해왔다. 이처럼 부정적 정서라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여러 정서 경험들에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알아본 여러 조건에서 여러 유형의 자기관련 정서들이 모두 동일한 결과를 보일지 이 연구 결과만으로는 알 수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결과는 자기관련 정서 중 초조정서로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더하여 본 연구에서는 실제 상황, 유사 혹은 하향 비교가 일어난 후 경험되는 초조정서를 알아본 것이 라기보다는 비교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경험되는 초조정서를 알아보았다. 비록 비교하게 될 사람이 첫번째 본 시행에서 얻은 결과를 직접적으로 알려주어서 피험자들이 앞으로 자신과 비교하게 될 사람이 지각능력에서 자신보다 잘하거나 비슷하거나 혹은 못하는 사람이라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지만, 본 연구의 실험 장면은 두 번째 본시행에서 비교 대상의 수행 수준을 예측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비교가 예상되는 상황으로 연구 결과를 제한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 가설로 볼 때 각 실험 조건의 피험자들이 자신과 비교하게 될 사람이 두번째 본시행에서 얼마나 잘할지 예상한 수준을 매개 혹은 조절변인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매개 과정을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이러한 매개 혹은 조절 과정을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세 독립변인을 조작한 후 초조정서를 먼저 측정하고, 그 다음으로 비교 대상을 선택

하도록 하였다. 다시 말해서 순수하게 독립변인의 효과가 나타난 종속변인의 측정치는 초조정서이며, 비교 대상을 선택한 빈도는 부가적 측정치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논의한 결과들 가운데 비교 대상의 선택 빈도는 가설을 직접적으로 검증한 결과로 볼 수 없으며 장차 이 종속변인을 직접 다루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피험자들이 자신의 초조정서를 평정한 값은 9점 척도에서 4.0이 되지 않는 낮은 수준이다. 이 결과는 아마도 대부분의 정상적 대학생들이어서 연구의 대상이 초조정서를 덜 경험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초조정서를 덜 경험하는 조건을 알아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과제에 사용한 지각능력 검사가 대학생들이 과제에 얼마나 관여되도록 만들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피험자들이 초조정서를 전반적으로 낮게 경험한 이유가 과제 관여도가 낮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과제 관여도를 알아볼 수 있는 측정치를 얻지 않아서 이러한 의문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러나 본 연구의 실험 진행 과정에서 나타난 피험자들의 반응을 보면 타인과 비교하여 수행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긴장을 보였다. 이 현상은 지각과제를 수행하는 상황 자체가 평가우려 등으로 피험자들의 자아관여를 높인 조건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장차 사회비교 상황에서 관여도를 달리하면 정서가 본 연구와 다르게 경험되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로 볼 때 사회비교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연구하려면 비교 대상에 따른 영향 뿐만 아니라 사회비교의 목표와 사회비교의 개입에 따라 그 기능이 달라지는 현상을 연구하여야 한다. 장래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자기관련 정서를 다루어서 얻은 사회비교의 순기능과 역기능이 실제 수행 장면에서 이 연구 결과와

동일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반복하여 검증해 볼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혜자·한덕용(2000). 정서 측정을 위한 도구 개발: 자기차이 이론을 중심으로 미술치료연구, 7권 1호, 51-67.
- 장은영·한덕용(1999). 비교 대상의 선택에서 환류유형, 비교속성 및 통제감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권 2호, 201-217.
- 한덕용(1999). 사회비교의 목표와 성공실패 경험에 따른 비교 대상의 선택.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권 2호, 311-329.
- Aspinwall, L. G., & Taylor, S. E.(1993). Effects of social comparison direction, threat, and self-esteem on affects, self-evaluation, and expected suc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4, 5, 708-722.
- Higgins, E. T.(1987). Self-discrepancy: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iggins, E. T.(1989). Continuities discontinuities in self-regulatory and self-evaluative processes: A developmental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57, 407-444.
- Salovey, P., & Rodin, J.(1984). Some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social comparison jealous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780-792.
- Wheeler, L., & Miyake, K.(1992). Social comparison in everyday lif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 760-773.

Effect of Success / Failure Feedback, Goal-setting for Social Comparison and Comparison Target upon Experiences of Self-Relevant Agitation Emotion

Hahn, Doug-Woong & Jang, Eun-Young

Dept. of Psychology, Sungkyunkwan Univ.

This study examined the three-way interaction effect of success/failure feedback, goal-setting for social comparison and comparison target on experience of self-relevant agitation emotions. A 2(performance feedback: success, failure)×3(goal-setting for social comparison: self-promotion, self-assessment, self-enhancement)×3(comparison target: upward, similar, downward) complete factorial design was used in this experiment. Subjects performed a task and were told that their performance of the next trial would be compared with those of the comparison target the computer arranged. And then subjects rated their self-relevant emotional experienc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ypothesized three-way interaction was confirmed. The self-relevant agitation emotion effects of comparison targets were varied according to the goals of social comparison and success/failure feedback. To put the three-way interaction effect concretely, in success condition more agitation-related emotion was experienced in self-promotion goal/upward comparison condition than self-promotion goal/downward comparison condition and less agitation-related emotion was experienced in self-prevention goal/upward comparison condition than self-prevention goal/downward comparison condition. And in failure condition more agitation-related emotion was experienced in self-prevention goal/downward comparison condition than self-prevention goal/upward comparison condition. Especially in self-promotion goal/success feedback/upward condition, choice percentage of the upward target was higher than other conditions, and in self-prevention goal/failure feedback/upward condition, choice percentage of downward target was higher than other conditions. The results were discussed in terms of the self-regulation theory of social comparison process(Hahn, 1999). and the implica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suggested.